

# 2010학년도 중등교사신규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

## 국 어

2차 시험	2교시	2문항 50점	시험 시간 120분
-------	-----	---------	------------

### 수험생 유의 사항

1. 문제지(초안 작성 용지 포함)와 답안지의 전체 면 수와 인쇄 상태를 확인하십시오. 답안지는 문항당 2쪽(교시당 4쪽), 초안 작성 용지는 교시당 4쪽입니다. 답안은 문항당 2쪽 이내로만 작성하여야 합니다.
2. 답안지 모든 면의 상단에 컴퓨터용 사인펜을 사용하여 성명과 수험 번호를 기재하고, 수험 번호, 문항 번호, 문항별 답안지 쪽 번호를 해당란에 '●'로 표기하십시오. '●'로 표기한 부분을 수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수정 테이프를 사용해야 합니다.
3. 답안은 지워지거나 번지지 않는 동일한 종류의 흑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작성하십시오(연필이나 사인펜 종류는 사용할 수 없음).
4. 답안 좌측 상단에 문항 번호와 답안지 쪽 번호, 과목명을 직접 쓰고 답안을 작성하십시오.

(예시) 국어 과목의 1교시 1번 문항, 2번째 답안지 표기

문항 번호 및 쪽 번호 표기란	
● ② (문항 번호)	① ● (문항 쪽 번호)
↑ ( 1 )번 문항의	↑ ( 2 )번째 답안지
과목명( 국 어 )	

5. 수학, 과학 과목의 답안지는 가운데 선을 그어 좌우의 2단으로 나누어 답안을 작성해도 됩니다.
6. 답안지에는 문항 번호 외에 문항 내용을 일체 옮겨 적지 마시오. 단, 하위 문항이 있을 경우, 하위 문항의 번호(1-1, 1-2 등)를 답안지 앞부분에 한 번 더 쓰고 답안을 작성하십시오.
7. 답안은 문항별로 답안지의 새로운 면에 작성하고(단, 하위 문항은 이어서 작성해도 됨), 해당 문항의 답안 작성이 완료되면 **답안 마지막 문장의 뒤에 반드시 <끝>이라고 쓰시오.**
8. 답안 초안 작성은 문제지의 맨 뒷부분에 있는 초안 작성 용지를 활용하십시오.
9. 답안 수정 시에는 해당 부분에 두 줄(=)을 긋고 수정 내용을 쓰시오.
10. 다음에 해당하는 답안은 채점하지 않습니다.
  - 연필로 작성한 부분
  - 수정 테이프나 수정액을 사용하여 수정한 부분
  - 답안란 이외에 작성한 부분
  - 답안란에 개인 정보를 노출한 답안지 전체
  - 답안란에 개인 정보를 암시하는 표시가 있는 답안지 전체
  - 문항당 답안지 2쪽을 초과하여 작성한 부분
11. 답안지 교체 시 시험 종료 전까지 답안 작성을 완료해야 합니다. 시험 종료 후 답안 작성은 부정 행위로 간주됩니다.
12. 답안을 작성하지 않은 빈 답안지도 성명, 수험 번호, 문항 번호, 문항 쪽 번호를 기재·표기한 후, 순서대로 정리하여 4쪽 모두 제출하십시오.

3. 다음 <자료>를 읽고 논술하시오. 【30점】

<자 료>

(가) ① 장군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우리 모두를 슬프게 했다.  
전투가 끝나고 난 후 곳곳에서 주검이 발견되었다.

② 그녀는 반짝거리는 목걸이를 하고 있었다.  
며칠째 목거리가 낫지 않아 말이 잘 나오지 않았다.

(나) ① 나는 책값을 지불하고 서점에서 나왔다.  
요즘은 공책 값이 예전보다 훨씬 비싸다.

② 그는 목표를 향해 조금씩 나아갔다.  
바람에 춧불이 하나씩 꺼져 간다.

(다) ① 갈비촌: 갈비 요리를 전문으로 하는 식당들이 모여 있는 곳.  
반짝세일: 짧은 시간 동안만 물건을 싸게 파는 일.

② 무추: 뿌리는 무이고 잎은 배추인 신품종.  
컴시인: 컴퓨터의 원시인.

③ 명퇴: 명예퇴직.  
아나바다: 아끼고 나누고 바꾸고 다시 쓰자.

(라) ① 부교 → 뜯다리, 해로 → 바닷길, 코너킥 → 구석차기  
② 에어컨 → 찬바람틀, 컴퓨터 → 슬기틀, 홈런 → 담넘이

(마) 단어 형성법 교육은 지식, 기능, 태도 교육을 통해 단어 형성법을 이해하고 활용하여 궁극적으로는 학습자의 어휘력을 확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단어 형성법 교육은 국어의 단어 형성에 대한 체계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기존의 어휘를 분석하는 활동과 창의적으로 새말을 만들거나 기존의 단어를 적절한 순화어로 바꿀 줄 아는 활동을 포함한다. 이를 통해 학습자는 우리말을 사랑하고 스스로 언어문화를 창조하는 주체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바) 【과제: '결혼할 사람을 구하는 일'을 의미하는 단어를 만들어 보자.】

학생 A: 뭐가 좋을까, 아, '짚신구합이'가 좋겠다.

학생 B: "짚신도 제짝이 있다."에서 만들었구나. 그럴 듯한데. 하지만 '-이'는 '~를 하는 사람'이란 뜻으로 많이 쓰이지 않아. 이럴 때는 '-기'를 쓰는 것이 좋지.

학생 A: 그럼, '짚신구하기'로 할까?

학생 B: 좀 길다고 생각돼. 차라리 '짚신질'은 어떨까?

학생 A: '싸움질', '부채질' 같은 단어를 분석해 봐도 그렇고, 뭔가 좀 나쁜 뜻 같아. 한자어인 '질'이 들어가서 그런가? 한자어는 가능하면 안 쓰는 게 좋겠지.

학생 C: 나도 '질'이 들어가면 좋지 않은 것 같아. '짚신'이라는 말도 금방 와 닿지 않아.

학생 A: '짜꿍모집'은 어때. 그걸로 할까?

학생 B: '모집'은 한자어니까 고유어로 하는 것이 어떨까. 그리고 '모집'이라면 여러 명을 모은다는 뜻이 되어 맞지 않아. '짜꿍구하기'로 하자.

학생 C: 좀 길기는 하지만 그게 적당하겠네.

학생 B: 음……. 그래, 일단 그걸로 하자.

학생 A: 좋아, 오늘 정말 재미있었어.

학생 C: 나도 그래, 다음에 또 해 보자.



4. 현대 문학 작품에 나타난 갈등의 양상과 의미를 소통의 관점에서 이해하는 수업을 하고자 한다. <조건>에 따라 논술하시오.

(30±3행) 【20점】

(가) 잃어 버렸습니다.

무얼 어디다 잃었는지 몰라  
두 손이 주머니를 더듬어  
길에 나아갑니다.

돌과 돌과 돌이 끝없이 연달아  
길은 돌담을 끼고 갑니다.

담은 쇠문을 굳게 닫아  
길 위에 긴 그림자를 드리우고

길은 아침에서 저녁으로  
저녁에서 아침으로 통했습니다.

돌담을 더듬어 눈물짓다  
쳐다보면 하늘은 부끄럽게 푸릅니다.

풀 한 포기 없는 이 길을 걷는 것은  
담 저쪽에 내가 남아 있는 까닭이고

내가 사는 것은, 다만  
잃은 것을 찾는 까닭입니다.

- 윤동주, 길

(나) 방울재 허칠복(許七福)이가 고향을 떠난 지 삼 년 만에 미쳐서 돌아와 징을 두들기며 댐을 막은 뒤부터 밀려드는 낚시꾼들을 쫓아 댔다.

덩실덩실 춤을 추며 징을 두들기는 칠복이의 모습은 나무탈을 쓴 도깨비 같다고들 했다.

그리고 그가 그렇게 된 것은 고향을 잃은 서러움, 아내를 빼앗긴 원한 때문이라고들 했다.

아무도 기다리는 사람이 없는 고향에 여섯 살 난 딸아이를 업고 불쑥 바람처럼 나타난 그는, 물에 잠겨 버린 지 삼 년째가 되는 방울재 뒷동산 각시바위에 댕돌같이 앉아서는, 목이 터져라고 마을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 대는가 하면, 혼자서 고개를 끄덕거리 가며 오순도순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리를 중얼거리다가도, 불쑥 고개를 쳐들어 하늘을 찢러 보고, 창자가 등뼈에 달라붙도록 큰 소리로 웃어 대고, 느닷없이 징을 두들기며 경중경중 도깨비춤을 추었다.

(중략)

봉구네 집에는 매운탕집을 하는 방울재 사람들이 모두 모였다. 그들은 장사가 안 되는 날이면, 옛날 방울재 윗당산머리 봉구네 사랑방에 모여 놀던 버릇대로 밤만 되면 찾아왔다.

하나, 이날 밤 모임은 좀 달랐다. 이날 밤에는 칠복이 문제로 모인 것이었다.

“당장 쫓아 버려야 혀. 옛정도 좋지만 살고 봐야 할 꺼이 아닌감!”

올봄에, 혼기가 다 찬 두 딸과 중풍에 걸려 기동을 못 하는 병든 아내를 끌고 방울재로 다시 돌아온, 회갑 줄에 앉은 강촌영감이 아까부터 와락와락 성깔을 부려 가며 큰소리였다.

“차마 워치크롬 쫓아낼 거여.”

봉구였다. 옛날에 위아랫집에서 처마 맞대고 살아온 정 때문에, 강촌영감의 의견에 찬성을 하지 못했다.

“봉구 말도 일리가 있재잉. 고향에 찾아온 사람을 워치기 쫓아낼 거요잉.”

덕칠이도 칠복이와 가깝게 지내 왔던 터라, 쫓아내자는 데에는 어딘가 마음이 꺼림했다.

“제정신 갖고, 먹고 살겠다고 헌담사 워편 무지막지헌 놈이 고향 찾아온 사람을 쫓아내자고 허겼어?”

“암, 그러고 마니!”

“음작달작 못하게 묶어 놓으면 으쩌겠소?”

덕칠이었다. 그는 봉구의 눈치를 살피며 말했다.

(중략)

신작로에 당도해서 조금 기다리자 읍으로 들어가는 헌털뱅이 버스가 왔으며, 그들은 서둘러 차를 세우고 칠복이를 밀어넣었다.

“징헌 고향 다시는 오지 말어.”

봉구가 천 원짜리 두 장을 칠복이의 호주머니에 푹 쑤셔 넣어 주며 울먹울먹한 목소리로 말했다.

칠복이가 무슨 말인가 하는 것 같았으나 부르릉 버스가 굴러가는 바람에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그들은 버스가 어둠 속에 묻히고 자동차 불빛이 보이지 않게 되어서야 말없이 돌아섰다.

한사코 가기 싫다는 칠복이 부녀를 억지로 버스에 태워 쫓아 보낸 그날 밤, 방울재 사람들은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후두둑후두둑 빗방울이 굵어지고 땅겍질 벗겨 가는 소리가 드세어질 무렵, 봉구는 잠결에 아슴푸레하게 들려오는 징소리에 퍼뜩 놀라 일어나 앉았다.

“아니, 이 밤중에 무슨 징소리당가?”

그는 마른기침을 토해 내고 삐그덕 방문을 열어, 송곳 하나 박을 틈도 없이 짝 들어찬 어둠의 여기저기를 쑤석여 보았다. 어둠 속 어디선가 딸을 업은 칠복이가 휘주근하게 비에 젖은 채 바보처럼 벌쭉벌쭉 웃으면서 불쭉 나타날 것만 같았다.

- 문순태, 징소리

(다) 나는 ‘징소리’를 읽고 너무나 가슴이 아팠다. 그리고 불쌍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칠복이의 마지막 모습이 생각난다. 나중에는 소원대로 고향에 돌아왔을까? 돌아왔다면 마을 친구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나는 칠복이가 고향에서 친구들과 함께 살았으면 좋겠다. 정말 그러기를 바란다. 이웃들과 사이좋게 지내는 것이야말로 가장 행복한 삶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 학생의 반응일지 중에서

<조 건>

- 1) 문학을 소통으로 보는 문학교육의 관점을 설명할 것.
- 2) (가)와 (나)에 나타난 갈등 양상을 각각 분석하되, 문학 소통과 관련지어 의미를 해석할 것.
- 3) ‘작품 해석의 결과를 자기 삶의 문제에 적용할 수 있다.’는 학습목표로 수업한 후에 한 학생이 (다)의 글을 썼을 때, 이 학생에게 지도할 내용 2가지를 선정하고 그 이유를 밝힐 것.

수고하셨습니다